

# 한마음한몸

30th Anniversary  
**30**  
한마음한몸운동본부  
1988-2018

2018 가을호 | vol. 39

One-Body One-Spirit Magazine Autumn  
[www.obos.or.kr](http://www.obos.or.kr)

## SPECIAL

당신이 생명나눔에 동참할 이유  
이렇게 감사를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 COVER STORY



“이렇게 만나 저희가 받은 감사를  
직접 전달해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지난 9월 1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30주년 기념 감사음악회’가 열렸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이라는 대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헌혈, 헌안운동을 벌이며  
교회와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50여 개국을 대상으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기획특집

- 3 당신이 생명나눔에 동참할 이유

### 함께하는 기도

- 9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창립 30주년

- 10 이렇게 감사를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12 본부의 나침반을 점검하는 시간

### 현장 속으로

- 14 우리 마을의 간호사가 될 자신이 있어요  
15 이제는 가게도 열고, 결혼도 하며  
삶을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 나누고 싶은 글

- 16 세상에서 가장 흔한 약

###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 19 선물 받은 생명, 나누시다

- 20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 22 한마음한몸 새 소식

통권 39호 | 2018년 가을호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일 2018년 가을

편집·디자인 슬로워크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T 02)727-2288

E obos@catholic.or.kr

Ⓜ www.obos.or.kr

f facebook.com/oboscorea

📷 onebody\_onespirit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홈페이지(www.obos.or.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 기획특집

# 당신이 생명나눔에 동참할 이유

---

세상에는 다양한 나눔이 있습니다.

지구촌 이웃을 위해 후원을 할 수도 있고, 재능기부를 할 수도,  
꾸준히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눔에는 경중이 없으니 어떤 나눔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나눔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조혈모세포는 수천, 수만분의 일의 확률을 뚫고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했을 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뇌사 시, 또는 사후에 할 수 있는 나눔입니다.  
즉 내가 원한다고 바로 행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나눔이지요.  
그런데 그 나눔이 이루어지면, 죽음의 문턱에 있던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내가, 내 주변의 누군가가 병으로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눔은 얼마나 큰 기적일까요.  
생명나눔은 수많은 기도와 눈물이,  
나눔의 영광이 진하게 삶을 관통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건강하다면, 그리고 나눌 의지가 있다면,  
이 나눔에 나서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요.

#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아들이 대견합니다

남기주 바울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을 만날 수 없지만 아마도 하늘나라 봉쇄수도원에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들의 꿈이 실현되어 기쁩니다.”

남기주(바울라, 수원교구 서정동본당) 님은 세상을 떠나며 장기를 기증한 아들을 기억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 정동윤(안젤로) 님은 지난 2014년 갑작스러운 병으로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뇌사 상태에서 장기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아들이 평소 베푸는 걸 좋아했는데 살면서 마음만큼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가족(남편 정대규 바오로, 큰아들 정재훈 대건 안드레아 신부(수원교구 능곡동성가정본당 주임))와 상의해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한 줌 흙이 될 뿐이지만, 장기를 기증하면 인간의 몸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소중한 몸이 됩니다.”

“건강한 장기만 있다면 생명을 살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은 매 순간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3만 명에 달하지만 뇌사 장기기증자는 2017년 기준 515명에 불과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아들이 대견합니다.”

남기주 님에게 아들은 이제 행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습니다. 하느님 곁에서 행복하게 지낼 거란 믿음으로 이제 기도 안에서 웃으며 만납니다.

“가난한 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 게으른 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련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이 창피한 것이에요. 우리 몸과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장기기증은 선물로 받은 하느님 사랑을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고 떠나는 숭고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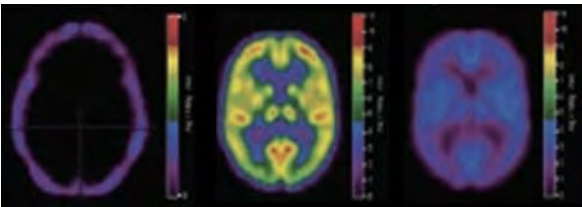


# 장기기증은 가장 숭고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 장기기증 더 알아보기

### 뇌사와 식물상태 인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뇌사는 뇌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죽음의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인공장치에 의해 일정 기간 따뜻하게 피가 흘러 각 장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반면 식물상태 인간은 뇌의 일부가 손상을 입어 의식이 없고 전신이 경직된 상태로, 수개월 혹은 수년 후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물상태 인간은 장기기증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왼쪽부터 뇌사, 정상, 식물상태 인간의 뇌 사진

### 기증하면 장례는 어떻게 치르나요?

뇌사 시 장기기증의 경우, 기증 전 과정은 약 30시간이 소요되며 기증 수술 후 시신을 인계받아 일반 장례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뇌사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서 기증자 시신 수습, 장례식장 이송 등을 지원합니다.

사후 안구기증의 경우, 보통 시신이 있는 장례식장으로 직접 의료진이 나가 기증절차를 시행하므로 기증과 상관없이 장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러한 영웅적인 행위들은 생명의 복음에 대한 가장 장엄한 경축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Evangelium Vitae), 1995.3.25., 86항.

### 뇌사 상태일 때와 사망 후에 기증할 수 있는 장기가 다른가요?

장기는 뇌사 상태일 때 기증이 가능합니다. 뇌사 시와 사망 후 기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뇌사 시 장기기증	사망 후 기증
기증 장기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각막)	안구(각막)
기증 가능 나이	고령의 경우, 기증 안 될 수 있음 최종 기증 여부는 사망 당시 건강상태에 따라 결정됨	90대도 기증 가능
기증 제한조건	전염성 질환 보유자는 기증 불가, 안구의 경우 시력에 관계없이 기증 가능	



내 지갑 속 나눔 증명서, 장기기증 등록증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등록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장기기증 등록증을 드립니다.  
장기기증 문의 | 가톨릭생명나눔센터(1599-3042, 명동성당 1898 지하광장 내)

# 헌혈에서 조금만 더... 백혈병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더 알아보기

과거 드라마에서 화제가 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백혈병은 골수이식을 받아야만 한다'는 이야기. 더는 유효하지 않은 말입니다. 골수이식은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한 방법이며, 헌혈을 조금 더 오래 하는 방식으로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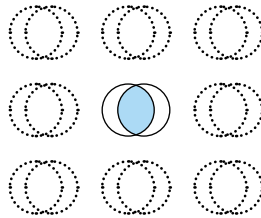
## 조혈모세포 기증, 왜 필요한가요?



### 유일해요

완치의 유일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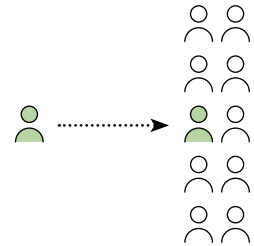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들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병든 조혈모세포를 모두 소멸시킨 후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야 완치될 수 있습니다.



### 어려워요

일치할 확률 2만분의 1

부모는 5%, 형제는 25%, 낯선 사람은 2만분의 1. 기증자와 환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할 확률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청할수록 사람을 살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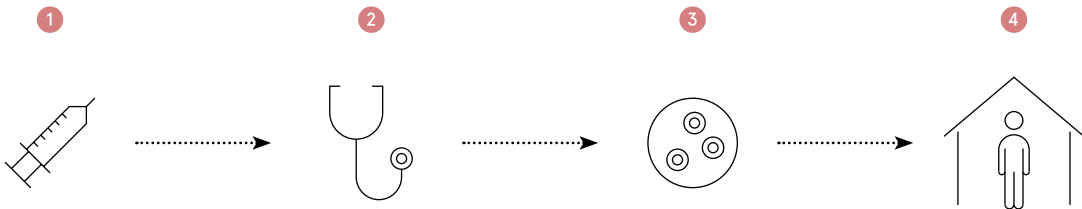
### 모자라요

대기자에 비해 낮은 이식률

2017년 기준, 이식 대기자의 약 13%인 564명만이 실제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과정

자료: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1 기증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직적합성항원(HLA) 검사를 위해 3mL 정도의 채혈을 진행합니다.

2 HLA가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상담을 거쳐 최종 의사를 확인한 후, 기증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3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조혈모세포를 채취합니다. 이를 위해 기증자는 3박 4일 동안 입원하며, 채취에는 3-4시간이 소요됩니다.

4 퇴원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조혈모세포는 2-3주 이내에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조혈모세포 기증 상식 FAQ

### 골수기증이 어떻게 헌혈 형태로 가능해진 건가요?

과거에는 조혈모세포를 기증자의 골수에서 채취했으나 최근에는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하고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하여,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나이가 많은데 기증할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남자 50kg 이상, 여자 45kg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특히 2018년 8월 9일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장기등의 정의)의 개정으로 이식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말초혈이 포함됨에 따라,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기증도 유급휴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근로자가 기증하기 위해 소요된 입원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아무래도 걱정이 됩니다. 기증자가 아프거나 위험하진 않나요?

조혈모세포를 채취한 부위에 경미한 출혈, 감염 및 마취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후유증 발생이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기증 후 2-3주 이내에 기증 전 상태로 조혈모세포가 회복되므로 기증자의 혈액 세포 생성능력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 기증자의 비용 부담은 없나요?

조혈모세포 기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환자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므로 기증자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동시에 조혈모세포 기증은 기증자의 선행에 의한 것이므로 기증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또한 없습니다.

### 실제로 기증한 사람들의 소감을 듣고 싶어요.

“경험자로서 주변에 권유할 만큼 입원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홍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이 골수기증처럼 아픈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더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증자가 되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자랑하고 다녔는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게 뭐야?’랑 ‘그거 아픈 거 아니야? 막 허리에 구멍 나고...’였기 때문입니다.”

“이식과정에 통증으로 조금 힘들긴 했지만 뜻깊고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아 후회나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문의 및 희망등록

가톨릭생명나눔센터 | 1599-3042, 명동성당 1898 지하광장 내

#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본부의 치료비 지원사업

본부는 2004년부터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자·환우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억2천여만 원 규모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생명을 살리고자 후원자 여러분께서 정성껏 모아주신 후원금에서 온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b>① 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지원사업(2004~)</b> 백혈병과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24세 이하의 환아에게 진료비 지원	<b>백혈병·난치병 환아</b> <b>227명</b>	<b>지원금</b> <b>총 19억1천여만 원</b>
<b>② 장기이식대기자 지원사업(2006~)</b> 장기이식 대기 환자 중 비용 때문에 수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수술비 지원	<b>장기이식대기자</b> <b>132명</b>	<b>지원금</b> <b>총 11억9천여만 원</b>
<b>③ 긴급지원사업(2008~)</b>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소년소녀가장, 의료사회사업실에서의 지원 요청 환자 등 복지 사각지대의 환우들을 지원	<b>경제적으로 힘든 환자</b> <b>153명</b>	<b>지원금</b> <b>총 9억2천여만 원</b>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각 사업 시작년도부터 2018년 9월까지를 기준으로 함

## 경제적 어려움이라도 덜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박은미 마린 수녀

가족 중 누군가가 크게 아프면 가족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예상하지 못한 고액의 치료비까지 발생하면 가족은 더욱 힘든 상황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한 환아는 뇌종양 치료를 위해 조절모세포 이식을 2차로 시행했지만, 면역 체계의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암 수술을 받았던 환아의 아버지 또한 병이 재발하여 재수술을 해야 했는데, 1회 12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비급여 치료제의 사용이 불가피한 환아에 대한 걱정으로 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환아도 딱한 사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지원받을 곳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반 뼈가 생성되지 않은 채 태어나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한 환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있기도 했습니다.

본부에 후원해주시는 후원금으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후원자분들의 마음 또한 전해져 환자들과 그 가족이 위로받고, 하루빨리 회복되길 희망합니다.

## 국내 환자 치료비 지원 후원하기

무통장입금 | 우리 1005-198-334455,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헌혈증서



**의학이 발달했어도 사람의 혈액은 인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혈이 시급한 환자들에게 헌혈증은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헌혈과 헌혈증이 사람을 살린다면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요? 지금 서랍 속에 잠든 헌혈증을 찾아 기증해주세요.

기증문의 | 02)727-2293

#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주신 주님을 본받아  
이웃과 생명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생명나눔문화가 이 땅에 정착하게 하소서

아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한 1,4)”

사람들은 ‘나눔’ 하면 물질적인 나눔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에게 물질적인 것 이상의 큰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나눔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부는 생명나눔운동의 일환으로 장기기증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면 장기기증에 대한 무관심이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에 생명나눔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명나눔운동을 열정적으로 펼쳐가고 있는 사람들과 생명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의 빛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 이렇게 감사를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선선한 초가을 바람이 선물처럼 불어오던 지난 9월 1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30주년 기념  
감사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30년간 각종  
후원으로, 기증 신청 및 실제 기증으로, 다양한 봉사과 참여로,  
조직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함으로 본부와 함께해주신 분들이 모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음악회는 고석진 퍼커션의 감각적인 댄스-퍼커션 공연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외에도 CPBC소년소녀합창단, 박우곤·류선영



음악회 후 직원 전체 기념사진 촬영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원 합창



부부, 김종환·리아킴 부녀, 자전거 탄 풍경, 박상민 씨 등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공연 사이사이에 본부 30주년의 역사와 축하 메시지를 담은 영상 상영, 양미경 홍보대사와의 대담, 나눔을 실천한 대표 3인과의 토크 등 본부의 활동과 함께해주신 분들을 두루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연 막바지에는 스물여섯 명의 본부 전직원이 함께 합창하며 후원자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성원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본부 커뮤니케이션팀의 이상민 미카엘 대리는

“저희는 나눔이 전달되는 현장에서 정말 많은 감사의 인사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그 감사를 꼭 잘 전달해드리겠다고 약속하곤 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뵈어 제가 받은 수많은 감사를 전달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라며 진심어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음악회는 느그러운 마음과 열띤 호응으로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풍성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정상 자리하지 못한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해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늘 감사하며, 앞으로도 본부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한 대표 3인과의 대화 장면



CPBC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가수 박상민 씨의 공연



홍보대사 양미경 씨에게 감사패 전달

# 본부의 나침반을 점검하는 시간

행사명 설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나아갈 방향'

일시 2018년 7월 6일(금)

장소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본부의 기관 정체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김성우 신부 청주시노인복지관장

현재 조직의 역할과  
활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재현 NPO스쿨 대표

“독일 카리타스협회는 1)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자 2)연대를 위한 조정자  
3)사회정의를 위한 변호인 4)카리타스 현장의 전문가  
양성과 종사자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자, 이 네  
가지를 ‘카리타스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녀야 할 요소’로 제안했습니다. 본부도 이 요소들을  
갖추어가길 바랍니다.”

“본부의 지난 성과는 우리 사회의 보기 드문 족적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활동, 운영, 자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조직을 잘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 정체성에 관하여는  
자기 의제를 주도하는 조직인지, 많은 조직을 만들고  
독립시키는 플랫폼인지 잘 선택하거나, 본부 특성을  
살려 절충을 모색하는 것도 나름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설립 30주년을 맞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주요 내외부 관계자들을 모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해 본부는 설립 정신인 성체성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본부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성체성사의 근본정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의 방향성,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본부의 이사장이신 유경춘 디모테오 주교님의 개회 및 인사 말씀에 이어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기조 강연이 있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님은 “한마음한몸운동은 ‘사랑실천운동’인 동시에 신자들이 하느님과 일치하고 친교하도록 초대하고 하느님의 선물을 신자들에게 전달해주는 통로 즉 메신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 이웃과의 일치와 친교를 촉진하는 운동이라며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시대의 아젠다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합니다



박정우 신부 서울대교구 성신교정 교수

“설립 30주년을 맞은 본부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업을 그저 수동적으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이를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젠다’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합니다.”

스스로 새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김동훈 피스원즈코리아 준비위원회 대표

“본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의 단체나 세력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 앞으로의 30년을 향하는 본부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소중한 의견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나온 30년 동안 본부에는 큰 성과도 있었지만 그만큼 과제도 많아졌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본부는 더 많은 의견을 모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온전한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은 지금도 지구촌 누군가의 꿈, 누군가의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현장에서 보내준 감사 인사로 소식을 전합니다.

## 우리 마을의 간호사가 될 자신이 있어요



미얀마의  
주디쓰 나우 파우 와  
(Judith Naw Phaw Wa)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디쓰 나우 파우 와  
(Judith Naw Phaw Wa)라고 합니다. 저는  
미얀마 파푼(Hpa-Pun) 지역의 티포타  
(Hti-Po-Hta) 마을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은 모두 열 명이고,  
저는 넷째입니다. 올해 열 여섯 살인 저는  
현재 9학년으로 파안(Hpa-An)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님은 저를  
파푼 기숙사로 보내셨습니다. 그후 저는  
여러 학생들 중 파안(Hpa-An) 기숙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5년에 이곳에 온  
저는 지금까지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마을의 어린이들과 사람들을 돕는  
간호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마을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병원도 없고,

의사나 의료 종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비롯한 많은 마을 사람이  
적절한 병원 치료나 의약품을 이용할 수  
없어서 사망합니다. 이것이 제가 간호사가  
되려는 이유입니다.

저는 파안 기숙사에서 제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배울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또한, 하느님과  
각별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매일의 성찬전례에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연대의식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초 리더십 훈련을  
위해 제공되는 많은 활동과 기회를 통해  
저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안 기숙사의  
모든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신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업명** 파안 지역 80명 아동, 청소년  
교육 지원

**지역** 미얀마 카인 주 파안 지역  
**기간** 2018년 1월~2018년 12월(예정)  
**사업내용** 미얀마 소수민족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을 위한 기숙사, 식량,  
의약품, 학용품 및 학비 지원, 학생들의  
영성적, 도덕적인 가치에 대한 교육 및  
영어, 컴퓨터, 음악, 바느질 등 아웃리치  
프로그램 지원

※ 2018년도 기준, 파안(Hpa-Aa) 기숙학교에는  
8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글은  
그중 세 명이 제출한 개인적인 감사의 글 중  
하나로 버마어에서 영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편집하였습니다.



# 이제는 가게도 열고, 결혼도 하며 삶을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의  
리 라디(Li Rady)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온 리 라디(Li Rady)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캄보디아의 장애인 기술학교  
반띠에이 뿌리엵(Banteay Prieb)에서  
전자공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봉제 공장에서  
5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을 때마다 어머니와 저는 다른 공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제 삶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일을  
할지, 어떻게 장애를 견뎌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당시, 옆 병상에 사고를 당한  
친구가 제게 장애인 기술학교인 반띠에이  
뿌리엵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결국  
친구와 저는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나요?” 우리는  
출입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었고,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소개하며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전자공학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동네에 전화기나 오토바이에  
비해 전자제품 수리 가게는 적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많이 걷는 일이

요구되지 않기에 다리가 불편한 제게 더  
적합한 면도 있었습니다.

전자공학을 배우는 건 정말 재미있습니다.  
며칠 전, 피어리(Pheary) 선생님께서 고장  
난 밥솥을 수업 중에 가져오셔서 문제를  
찾는 것을 도와주셨는데, 그 후로 저는  
스스로 밥솥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와 에어컨 수리 기술도  
배우고 싶습니다. 최근 프놈펜에 새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대부분 에어컨을 쓰기  
때문에 기술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주말에는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용  
기술이 있으면 전자제품 가게에 고객이  
없을 때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띠에이 뿌리엵에서 벌써 반 학기를  
마쳤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제 삶은 무척  
힘들었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했고, 어떻게 가족을 부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반띠에이 뿌리엵은 그런 제게  
동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우선 다른 장애를  
가진 친구들로부터 배웁니다. 저보다  
상태가 심각해도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난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연세가  
많으신데도 가족을 위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의  
어머니와 장애를 가진 다른 분들도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삶의 목표는 가게를 열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가게를  
연 후에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배우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홀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돕고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힘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 사업명 권리와 자립에 기반한

지체장애인 자력화 사업

지역 캄보디아 편달 주 앙수놀 지역

기간 2017년 1월~2019년 12월(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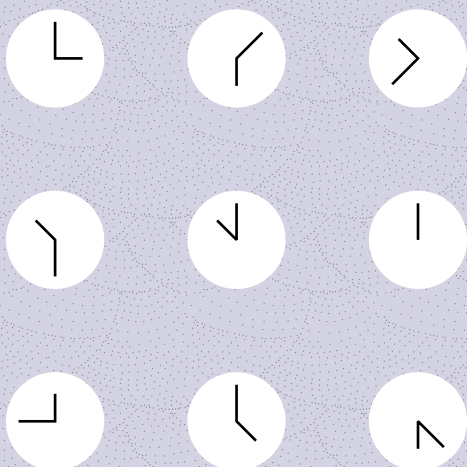
사업내용 분쟁의 역사 속에서

지뢰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평화의  
집, 반띠에이 뿌리엵(Banteay Prieb)은  
장애인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자립을 위해  
직업기술(재봉, 기계, 전자, 휴대폰 수리,  
미용, 농업 등)을 교육하고 공동체 생활과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함

※ 위글은 본부에서 파견한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오정현 단원이 진행한 리 라디와의  
인터뷰를 편집하였습니다.

# 세상에서 가장 흔한 약

정00 (익명)



당신이 있는 그곳은

언제나 따뜻하기를 바라며...

본 수기는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를 직면하고 생명존중사회를 이루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최한 ‘자살사별자수기 공모전’에 응모된 작품입니다. 이 수기의 나눔이 자살 유가족들의 슬픔을 보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기를 게재할 수 있게 해주신 중앙자살예방센터, 수기 응모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줄 거야.”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한두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나에게도 시간이 해결해준 수많은 일들이 있다. 입시 실패, 면접 탈락 같은 큼직한 일들부터 오타자를 고치지 못하고 과제를 제출한 자그마한 일까지. 좋지 않은 기억은 다 시간이 해결해준 것 같다. 실제로 내가 겪은 일 중 시간이 해결하지 못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해결하는 데 정말 오래 걸린 일이 하나 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

2009년, 중학교 3학년이던 나는 친구들이랑 몰려다니기 좋아하는 철없는 아이였다. 3월부터 12월까지 반 친구들 대여섯 명과 어울려 다녔는데, 그중 나와는 다르게 꽤 철이 든 것 같은 친구가 두 명 있었다. 조숙하다고나 할까, 그 시절 대학생들이나 할 것 같은 농담을 던지면서도 공부도 잘하는 그 친구들이 참 멋져 보였다.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지 그들은 꼭 붙어 다녔다.

그해 겨울, 두 사람 중 한 친구의 연락이 매우 뜸해졌다. 당시 영어 과외를 같이 다니던 다른 한 친구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을 얼버무리기만 했다. 새해가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연락이 뜸해진 그 친구의 부고가 날아들었다. 자살이라고 했다.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연락이 뜸해진 동안 혼수상태였다고 했다. 그래서 같이 과외 하던 친구가 얼버무렸던 것이다. 소식을 듣자마자 머리가 멍해졌다.

다음 날, 처음으로 검은 옷을 입고 생애 첫 장례식에 갔다. 교회에서 치러진 장례식엔 우리 학교 3학년의 반 이상이 온 것 같았다. 그렇게나 친구가 많던 아이인데, 나도 그중 한 명인데, 그 애 마음의 병 하나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원망스러웠다. 장례식은 울음바다였다. 다른 한 친구는 장례식 절차 때문에 모두가 보는 데서 배우의 말을 해야 했다. 마이크를 잡고 울며 먼저 간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 친구가 우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다.



한 달 후, 나와 그 친구는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이 과외를 다니고, 같은 학교까지 가게 된 데다 자살한 아이와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 내가 그 친구를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컸다. 다른 반이었지만 우리는 같이 등하교하고, 같이 급식을 먹고, 같이 놀기도 했다. 하루는 영어 과외가 끝나고 나서 서점에 들렀다 노래방에 갔다. 재밌게 놀고 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작별인사를 하는데, 어쩐지 뒤돌아서 그 친구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었다.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이름을 불러서 인사를 한 번 더 할까 싶었지만 잘 가고 있는 친구를 다시 불러 세우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나도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노는 토요일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전화벨 소리에 깼다. 전화를 받은 엄마가 얼마 지나지 않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 친구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돌아왔다. 바로 어제 만났던 그 친구가. 두 번째로 겪는 친구의 자살이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충격이 찾아왔다. 그리고 자책감도.

친구가 죽기 바로 전날, 집으로 돌아갈 때 친구를 다시 불러 세워 다음 날 약속을 정했더라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 노래방에서 좀 덜 우울한 노래를 불렀더라면 친구가 살아 있지 않았을까? 별별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뇌리를 스치는 기억도 있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아이가 뜬금없이 “그거 알아? 옷걸이에 목을 매서 죽을 수도 있데”라고 말했다. 그때 밥 먹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나며 친구를 타박했던 나 자신이 너무 미웠다. 당시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 친구는 신호를 보냈던 것 같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내가 원망스러웠다. 왜 그 친구는 절대 자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국 내 잘못 같다는 생각만 남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갔다. 신입생들의 연이은 자살로 시끄러웠던 학교도 이미 제자리를 찾은 지 오래인데 나만 4월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내내 난 구석 자리에 앉아서 1교시부터 9교시까지 내리 우는 것밖에 안 했다. 조용히 울어서일까, 놀랍게도 같은 반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아무도 내가 우는 걸 신경 쓰지 않았다. 2학기가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내가 우는 것을 알아챈 담임선생님이 학교에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하셨다. 선생님은 정신과 진료를 권유했고 부모님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셨다. 결국 면담에서 그쳤다. 그게 학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취했던 조치였다.

그때 느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는 나 자신의 힘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게 꽤나 힘들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게 버티고 나서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원래의 쾌활한 나로 돌아오는 듯했다. 종종 친구들이 생각날 때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 빼고는.

대학교 4학년인 요즘도 가끔 두 번째로 죽은 친구 생각이 난다. 친구가 죽기 며칠 전, 하교할 때 우리 엄마 차를 함께 타고 대학가를 지나던 적이 있다. 그때 창밖을 보며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도 저 언니들처럼 저런 옷 입고 다닐 수 있을까?” 엄마가 “당연히 저 나이 되면 다들 꾸미고 다니지”하고 대답하셨던 것도 기억난다. 친구는 열일곱에 멈춰 있지만 나는 어느새 나이를 먹어 바로 그 대학에 다니고 있다.

만약 죽은 친구들이 살아 있다면 어땠을까 지금도 생각할 때가 있다. 나처럼 대학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릴 때부터 똑똑했으니 벌써 조기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저 멀리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 있을 수도 있겠지. 먼저 간 친구들의 대학 생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멋진 일들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아직도 슬프다. 그들이 커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했는데. 지금 이 모든 걸 나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다.

6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시간이 약이지만 완벽한 약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요즘은 오히려 고맙기도 하다. 물론 그 일들이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아예 없던 일처럼 잊고 살았다면 평생 몰랐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자살 이후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가, 왜, 어떻게 자살했는지 보도하는 수많은 뉴스들. 그 이면에는 항상 자살 후 남겨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자살은

한순간 이루어지지만, 그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고통은 언제까지고 지속될 수 있다. 자살한 이들의 지인이었던 나도 많이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고통은 분명 더더욱 심했을 것이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보여야 정신적인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항상 주변에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죽은 친구는 워낙 어른스럽고 믿음직했기에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친구는 자기 나름의 신호를 계속 보냈던 것 같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 점을 알고 끊임없이 친구와 대화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한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무게는 정말 크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살률이 높다는 뉴스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한들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때마다 그들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나와 내 친구들이 겪은 일들이 포털 사이트에 짧게 뉴스로 올라왔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고 그저 자살한 여학생 A와 B로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생전 모습을 알던 나 같은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 내 친구들은 재밌고 착했으며 때론 푹 부러졌다. 점심을 먹을 때는 둘 다 느긋하게 급식실로 가는 편이었고 A는 매점에서 항상 바나나우유를, B는 김치만두를 사 먹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다 기억난다. 그렇기에 나에게 그 친구들은 결코 그냥 A와 B로 남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일 년에 자살하는 인구는 15,000명 정도라고 한다. 그들이 자살한 회사원 A, 고등학생 B, 대학생 모 씨, 40대 모 씨로 남겨질 때, 그들 주변의 누군가는 반드시 그들의 세세한 것들까지 기억하고 그리워한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17살에 발생한 사건을 기점으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나는 많이 바뀌었다. 우선 없던 꿈이 생겼다. 구체적 직업은 아니지만 막연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살 후 남겨진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래서 고3 겨울, 수능이 끝나고 영상전공을 진로로 선택했다. 다소 뜬금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 적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잘 맞는 분야가 영상이었고, 영상 콘텐츠를 매개체로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4학년이 된 지금은 생명교육과 자살 예방에 대해 연구하는 생사학 연구소에서 매주 스터디를 하며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 죽음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가끔 열일곱 살 때 일이 떠올라 집중이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런 걸 보면 어쩌면 나 자신조차도 아직 그 일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것 같다.

시간은 분명 약이 맞다. 하지만 완벽한 약은 아니다. 시간만 믿었다가는 나처럼 언젠가는 울컥 쏟아져 나오는 감정 때문에 애를 먹게 된다. 그렇다면 완벽한 약은 뭘까? 애초에 완벽한 약이란 건 있기는 한 걸까? 지금의 나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공부하고 경험을 쌓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만일 그 방법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의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꼭 귀띔해주고 싶다.

# 선물 받은 생명, 나눔시다



정현수 요한보스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운동팀 팀장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어린 딸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아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장기기증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떠난 것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인에게 매일 배를 어루만지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 캠페인을 막 마치고 돌아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운동팀 정현수 요한 보스코(수원교구 산본본당) 팀장은 장기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의 편지를 보여주며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헌혈 등의 생명나눔운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간접적으로나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생명나눔 캠페인과 교육, 환우 치료비 지원, 낙태 반대운동 등을 담당하며 ‘생명을 연결해주는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 팀장은 ‘성체성사 정신’인 생명나눔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더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장기기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1년에 2만7400여 명, 하지만 지난해 실제 뇌사 장기기증자는 515명에 불과했습니다.

정 팀장은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그는 “장기기증은 뇌사 시에만 가능한 기증방법인데, 자신의 몸에 칼을 대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이 백혈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조혈모세포기증 희망 등록을 해준다면, 내 가족과 혈액 유전자 타입이 맞는 기증자를 찾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면 백혈병으로 생명을 잃는 환자도 줄어들 것입니다.” 기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환자들의 마음이 정 팀장의 말을 통해 대신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 가톨릭정보문화·생명나눔센터

본부는 명동성당 1898광장 내에 ‘가톨릭정보문화·생명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에 발맞춰 생명나눔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을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다양한 가톨릭교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활동내용

-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상담 및 접수
- 기타 생명나눔 관련 상담
- 명동성당 및 성지 안내(주말), 교회정보 제공, 외국어봉사자운영(주말, 영어/일어/중국어)

### 운영시간

월~화 10:00~18:30, 수~일 10:00~19:00, 공휴일 휴무

### 장소

명동성당 1898광장 지하 1층

### 문의

02)3789-3488

#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67**



권승후 아론, 권지호 이레네



권아이린 이레네

## 생애첫기부

**강아린** 2017.06.10생 父 강조영 母 조하얀 | **강예진** 2018.05.15생 父 강호진 母 조아현 | **곽유하** 2017.07.26생 父 박성환 母 이은희 | **권운우** 2017.07.06생 父 권상윤 母 이희원 | **김도현 레오** 2017.08.14생 父 김정호 母 임소희 | **김민성** 2015.08.26생 父 김건희 母 오정애 | **김민재 세례자요한** 2016.06.22생 父 김효태 母 전영표 | **김소연 체칠리아** 2008.11.21생 父 김용현 母 정윤정 | **김수현** 2017.06.13생 父 김윤수 母 신지현 | **김예준 바울리노** 2017.06.22생 父 김세윤 母 정현아 | **김은우 디나** 2017.06.14생 父 김이현 母 박인선 | **김재원 라파엘** 2017.06.20생 父 김도현 母 박주원 | **김주혁** 2017.05.23생 父 김종경 母 김영규 | **김지연** 2015.06.16생 父 김은동 母 최민경 | **고다현** 2016.07.15생 父 고병한 母 오미연 | **권서우 올리아** 2017.12.29생 父 권구성 母 김은숙 | **권수빈 스틸라** 2017.07.05생 父 권혁성 母 장미선 | **권은별 마리스텔라** 2017.07.07생 父 권순호 母 우수현 | **김곤 예프렘** 2017.11.16생 父 김태훈 母 임지은 | **김민관 프란치스코** 2017.08.31생 父 김병욱 母 이다연 | **김민혁 라파엘** 2017.07.19생 父 김정우 母 정진영 | **김법진 비오** 2009.12.15생 父 김중혁 母 권운선 | **김예진** 2017.08.04생 父 김대익 母 조혜경 | **김우영 요한** 2017.07.05생 父 김동영 母 김이영 | **김은유 에밀리아나** 2018.01.05생 父 김성태 母 이정은 | **김이돈 안토니오** 2017.06.03생 父 김재홍 母 황세영 | **김태운** 2017.07.22생 父 김민호 母 백묵련 | **김태한** 2017.07.22생 父 김민호 母 백묵련 | **김현준** 2018.04.26생 父 김지용 母 전연희 | **노윤서 클라우디아** 2012.07.17생 父 노상훈 母 남민아 | **라보미 에스텔** 2010.06.30생 父 라갑채 母 권새봄 | **류강민** 2017.06.26생 父 류정배 母 이하정 | **박예진** 2017.08.23생 父 박승찬 母 방금주 | **류준혁** 2017.07.08생 父 류태훈 母 김요경 | **문서은 빈첸시오** 2017.05.09생 父 문대광 母 이화복 | **박시진 유스티나** 2018.04.09생 父 박민우 母 백일현 | **박이슬** 2017.08.04생 父 박민관 母 김성희 | **박지호 안나** 2016.06.10생 父 박동현 母 심재영 | **배민서 로사** 2017.07.01생 父 배지열 母 임혜영 | **박하늘 도로시** 2018.05.01생 父 박경민 母 하채원 | **박정우 네이단** 2017.11.29생 父 박제이은 母 김성미 | **서은을 안젤라 메리치** 2017.04.20생 父 서동우 母 허아란 | **서은우** 2017.08.30생 父 서정용 母 박고요 | **신혜 노엘** 2014.08.10생 父 신경호 母 천수임 | **안수정 도미니카** 2018.02.05생 父 안희준 母 이자영 | **안정환 라파엘** 2017.08.27생 父 안주용 母 정진 | **왕서연** 2017.06.09생 父 왕준기 母 이선 | **유현 바오로** 2017.06.15생 父 유시현 母 전연하 | **이유정** 2017.07.31생 父 이주호 母 이주현 | **이서우 안드레아** 2015.06.09생 父 이도훈 母 이은실 | **이주한** 2016.06.20생 父 이승준 母 최미혜 | **이지호 라파엘** 2017.07.12생 父 이현웅 母 이은숙 | **윤우진** 2017.09.09생 父 윤종현 母 김은선 | **윤재인 체사리아** 2012.06.29생 父 윤용준 母 안계현 | **윤지호 비오** 2015.04.17생 父 윤용준 母 안계현 | **이로운** 2017.07.20생 父 이영걸 母 최송이 | **이서영 글라리아** 2015.08.31생 父 이도훈 母 이지현 | **이서원** 2018.05.14생 父 이광범 母 이지혜 | **이서진** 2017.06.30생 父 이임동 母 조정미 | **이세아 스틸라** 2018.05.03생 父 이도훈 母 오은샘 | **이예준 루도비코** 2017.09.08생 父 이은학 母 김현주 | **이준우 노엘** 2015.12.25생 父 이상준 母 김가영 | **이지민** 2017.09.25생 父 이윤구 母 김설아 | **이지우 미카엘라** 2017.07.18생 父 이인선 母 김홍일 | **이지유** 2014.07.20생 父 이병길 母 박정미 | **장하진** 2017.10.08생 父 장석현 母 전소현 | **정수아** 2018.03.19생 父 정경조 母 우은정 | **정욱희 스틸라** 2003.11.13생 父 정우철 母 최순천 | **정조원 라파엘라** 2006.05.20생 父 정우철 母 최순천 | **정지호 사도요한** 2012.06.26생 父 정창호 母 김지애 | **정해인** 2018.04.28생 父 정가섭 母 김지은 | **조예주** 2018.04.13생 父 조옥상 母 이윤주 | **조윤세** 2017.08.08생 父 조태경 母 원민정 | **조마리** 2017.07.08생 父 조하석 母 황채희 | **조설아 스틸라** 2011.06.05생 父 조창현 母 허소영 | **조윤우 라파엘** 2017.08.03생 父 조석환 母 황소연 | **차정원 라파엘** 2017.09.11생 父 차동훈 母 문선주 | **채유준** 2017.04.10생 父 채기현 母 김태희 | **채하은** 2012.07.11생 父 채기현 母 김태희 | **천서준** 2017.06.23생 父 천금성 母 정유희 | **최연우** 2017.08.31생 父 최성진 母 노지현 | **최재하 디오테오** 2016.06.16생 父 최덕우 母 신정민 | **최혜원 스틸라** 2012.05.10생 父 최성우 母 이미연 | **하바(데영)** 父 이준일 母 이은영 | **함승규** 2017.06.15생 父 함준수 母 이고은 | **허벌 스틸라** 2017.07.26생 父 허진호 母 박민경 | **허윤** 2017.05.02생 父 허재량 母 강나리 | **홍예슬 레지나** 2012.07.11생 父 홍순관 母 최연이 | **홍재원 가브리엘라** 2015.09.03생 父 홍진표 母 박주영

## 두 번째 기부

**강수진 마리스텔라** 2016.08.12생 父 강호진 母 조아현 | **권호연 사무엘라** 2016.07.19생 父 권대규 母 박경민 | **김도형 안토니오** 2016.06.13생 父 김재현 母 임은진 | **김라온 다니엘** 2017.07.10생 父 김태한 母 노상원 | **김리야** 2016.06.24생 父 김도영 母 양소희 | **김민성** 2015.01.13생 父 김시욱 母 김태은 | **김사랑** 2015.07.03생 父 김삼영 母 손부영 | **김시우 도미니코** 2016.08.14생 父 김현철 母 심은혜 | **김이안 사도요한** 2015.10.05생 父 김재홍 母 황세영 | **김태진** 2017.05.18생 父 김준홍 母 최윤정 | **김하영 엘리사벳** 2018.07.04생 父 김형태 母 김빛나 | **김현서 안나** 2012.07.02생 父 김원준 母 김은영 | **나하윤** 2016.05.06생 父 나영식 母 손미혜 | **노도현 안드레아** 2013.11.02생 父 노성수 母 김리나 | **노동현 요셉** 2009.04.29생 父 노성수 母 김리나 | **노현송 베네딕토** 2011.08.21생 父 노치원 母 이자영 | **문수현 디오테오** 2016.08.30생 父 문종석 母 김영은 | **문예주 미카엘라** 2009.09.29생 父 문준중 母 현정원 | **문채원 안젤라** 2006.02.03생 父 문준환 母 조지연 | **문형빈 알베르토** 2005.04.05생 父 문준용 母 현정원 | **박지현 스틸라** 2016.07.26생 父 박준석 母 윤홍경 | **신유진 도미니코** 2015.08.02생 父 신대용 母 신지안 | **안진호 사도요한** 2016.07.22생 父 안재형 母 박혜선 | **엄지민** 2017.08.28생 父 엄진국 母 박은진 | **오선호 가브리엘** 2016.09.21생 父 오강민 母 이해정 | **오유담** 2017.07.11생 父 오민호 母 경미희 | **윤하영 스틸라** 2016.06.27생 父 윤준원 母 김혜정 | **이나은 리카르타** 2016.06.11생 父 이정민 母 최윤금 | **이로운** 2016.07.01생 父 이준수 母 김혜진 | **이서현** 2017.08.02생 父 이도훈 母 김유경 | **이진아 안나** 2005.08.07생 父 이승민 母 최은영 | **이하나 마리스텔라** 2016.06.26생 父 이주홍 母 민송이 | **이하나 마리스텔라** 2016.07.25생 父 이준영 母 최현하 | **이현을 다니엘** 2016.08.03생 父 이선민 母 문경자 | **조하랑** 2016.07.15생 父 조현우 母 김민아 | **최라온 로즈마리** 2017.01.31생 父 최영현 母 김진경 | **허윤우 베로니카** 2016.08.31생 父 허인준 母 이준영 | **허주원** 2018.04.17생 父 허병구 母 한서윤

## 세 번째 기부

**권지호 이레네** 2015.07.08생 父 권준하 母 김민선 | **길다인 카리타스** 2007.02.05생 父 길준일 母 강현지 | **김수현 미카엘** 2015.06.21생 父 김정모 母 이인영 | **김민채** 2016.08.08생 父 김시욱 母 김태은 | **김예아 예바** 2015.08.25생 父 김홍철 母 이세롬 | **김택진 바오로** 2015.06.30생 父 김재호 母 이영혜 | **노건우 예로니모** 2006.09.12생 父 노성수 母 김리나 | **류다은 프란체스카** 2015.05.12생 父 류태경 母 전선애 | **박라온 아우로라** 2015.08.08생 父 박지현 母 김태진 | **박승현 스틸라** 2016.05.27생 父 박정주 母 나연 | **박시현 올리바** 2012.04.09생 父 박석준 母 김동원 | **송지아 에스텔** 2015.07.19생 父 송영근 母 조미영 | **송지호 가브리엘** 2014.06.27생 父 송정훈 母 장민희 | **신호준 세례자요한** 2012.09.08생 父 신광호 母 노은영 | **이가운 안나** 2015.07.24생 父 이규연 母 이진미 | **이한성 클라테오** 2016.06.04생 父 이장훈 母 최현정 | **조서윤** 2016.08.09생 父 조영훈 母 전화실 | **조준희** 2016.08.15생 父 조성찬 母 권성연 | **최승채 스틸라** 2014.08.04생 父 최재철 母 박은희 | **최준우** 2014.08.06생 父 최동진 母 유시영



신효준 세레자요한



안정한 라파엘



조예주



최연우

## 네 번째 기부

**곽재인 클라라** 2015.08.11생 父 곽규섭 母 조경화 | **곽지우** 2014.09.03생 父 곽익현 母 김민영 | **기민우 요한** 2006.12.17생 父 기석권 母 박주원 | **김서현** 2014.08.06생 父 김태성 母 서민희 | **김재윤 아우구스티노** 2014.06.25생 父 김치겸 母 한희명 | **김민재 루피나** 2013.07.10생 父 김효진 母 안정민 | **김하은 클라우디아** 2015.08.07생 父 김를 母 진진선 | **김해은 바오로** 2014.06.30생 父 김성훈 母 황하나 | **김현우 사도요한** 2009.07.29생 父 김동휘 母 김민정 | **문서현 프란치스코** 2014.07.22생 父 문종석 母 김영은 | **문소현 모니카** 2014.08.27생 父 문성원 母 이아를 | **박시현 바오로** 2015.06.17생 父 박상도 母 윤지혜 | **심예원** 2014.06.02생 父 심상우 母 손지현 | **오서하** 2013.07.09생 父 오제영 母 김은주 | **윤여강** 2014.07.03생 父 윤석문 母 김은희 | **이도담 리디아** 2013.08.03생 母 강유진 | **이윤재** 2014.09.12생 父 이대근 母 윤기연 | **이은서 글로리아** 2013.08.01생 父 이정욱 母 한세영 | **이지민 프란체스카** 2015.07.16생 父 이웅세 母 조은영 | **정하준 요셉** 2014.09.26생 父 정연춘 母 좌상민 | **하정후 라파엘** 2014.06.20생 父 하인덕 母 최원선

## 다섯 번째 기부

**권승후 아론** 2012.12.21생 父 권준하 母 김민선 | **권아인인 아래네** 2014.06.01생 父 권춘식 母 최선영 | **김지아 마리아** 2013.07.18생 父 김주한 母 김민희 | **배지호** 2013.07.18생 父 배종성 母 임규현 | **심소은 품포사** 2013.07.09생 父 심현보 母 이예원 | **안서정 첼리나** 2014.08.31생 父 안희준 母 이자영 | **엄정훈** 2013.06.19생 父 엄준용 母 박은정 | **윤석준 프란치스코** 2014.07.30생 父 윤찬현 母 한제희 | **윤주미 마리아** 2013.06.12생 父 윤종근 母 이유정 | **윤혜림 마리아** 2013.06.04생 父 윤형준 母 양선영 | **이서울 에스텔** 2012.07.23생 父 이선민 母 문경자 | **이하은** 2013.07.16생 父 이종호 母 임혜현 | **이현우 가브리엘** 2013.06.27생 父 이봉원 母 강지은 | **이윤영 안나** 2012.08.31생 父 이대근 母 윤기연 | **임해아** 2013.08.06생 父 임상우 母 서유나 | **장건우 사도요한** 2014.09.04생 父 장영록 母 백민희 | **장윤** 2013.08.20생 父 장승환 母 조소윤 | **차은아 페트라** 2015.06.29생 父 차원철 母 최서연 | **홍지유 마리아 이사벨라** 2012.08.29생 父 홍원기 母 김민지

## 여섯 번째 기부

**고은혜 스텔라** 2013.05.19생 父 고재우 母 김이수 | **권태리 미카엘라** 2012.06.22생 父 권혁재 母 이수경 | **권태린 가브리엘라** 2012.06.22생 父 권혁재 母 이수경 | **김요한 세레자요한** 2007.06.18생 父 김건수 母 백미영 | **서민지 마리스텔라** 2012.07.17생 父 서영부 母 이정은 | **신지섭 대건 안드레아** 2013.07.01생 父 신동일 母 박수민 | **심율** 2013.08.14생 父 심현보 母 김지은 | **윤혜정 엔다** 2012.03.08생 父 윤형준 母 양선영 | **이승수 스테파노 반델리** 2012.06.13생 父 이종혁 母 김희선 | **이종현 대건안드레아** 2012.08.27생 父 이인기 母 이우영 | **정하윤 로사** 2012.05.05생 父 정연춘 母 좌상민 | **황승현** 2012.08.28생 父 황준하 母 황윤진

## 일곱 번째 기부

**김리에 율리아** 2011.05.23생 父 김선준 母 장진영 | **김유현 프란치스코** 2012.07.29생 父 김도연 母 류미숙 | **장수아** 2011.06.01생 父 장진성 母 이정하

## 여덟 번째 기부

**김영선 소피아** 2010.07.24생 父 김병욱 母 이수희 | **김영준 미카엘** 2010.07.24생 父 김병욱 母 이수희 | **이지민 에스텔** 2011.07.13생 父 이윤준 母 우혜영 | **홍은진 마리아** 2010.06.15생 父 홍원표 母 박선영

## 아홉 번째 기부

**이승유 콘스탄티노** 2014.04.12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 열 번째 기부

**김동하 다니엘** 2008.08.04생 父 김중영 母 조익희

## 열한 번째 기부

**고민음** 2015.06.11생 母 고영미 | **이아람** 2016.01.19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 열두 번째 기부

**조호연 베르나르도** 2007.08.20생 父 조남현 母 김자영

## 생일 기부

**김광호 요한** | **김형석 바오로** | **노자영 엘리사벳** | **도은채 소화데레사** | **박송완 베네딕토** | **박준희 세레자요한** | **장종희 다니엘** | **허소영 안젤라**

## 축일 기부

**이수민 마리아**

## 고인을 기억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부

**故 김세연** | **故 박근묵 라파엘** | **故 신혜원 수산나** | **故 이현희 데레사** | **故 박문용 마티아** | **故 전우진 요셉**

##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강경필 안드레아 & 신임선 스텔라** 만난 지 1000일 & 결혼기념 | **김근영 & 최원진 카타리나** 결혼 기념 | **김도훈 다니엘 & 송희** 결혼 기념 | **김명규 & 최인경 미카엘라** 결혼 6주년 | **김원기 안드레아 & 정윤지 글라라** 결혼 1주년 기념 | **박상준 니콜라오 & 주라영 글라라** 결혼 17주년 | **배주환 & 이종은 크리스티나** 결혼 1주년 | **빈센트 들로르 아브라함 & 김태희 소화데레사** 결혼 2주년 | **이재관 로베르토 & 양미경 스텔라** 결혼 12주년 | **이준혁 사도요한 & 양주희 에스텔** 결혼 10주년 | **장영록 레오 & 백민희 마리아 안젤라** 결혼 5주년

## 아름다운 커플의 기부

**안효봉 & 김진선 파체** 만난 지 100일 기념 | **허일희 루카 & 박경순 안젤라** 5주년 기념

## 감사 기부

**김연주 엘리사벳** 임신 기념 | **김정영** | **박리하** | **의덕의 샘** **쁘레시디움** 단원선서식기념 | **전지은 수산나** | **조서희 아가페** 생일 및 아직 기념 | **조창배 바오로** 건강 회복 기념 | **(주)케이엘에스씨** 창립 4주년 기념



# 한마음한몸 새 소식

## 2 청소년 지구시민교육



본부는 7/18(수) 서울 길음중학교, 9/12(수) 안성 안법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시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난민, 환경과 같은 글로벌 이슈를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4 하반기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 시작



본부는 9월부터 서울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및 광주교구와 함께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희망자 모집을 위한 하반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상지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14개 대학에서 진행되는 하반기 캠페인에서 약 900여 명의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1 지구시민교육프로그램 띠앗누리 25기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 25기가 지난 8/18(토) 해단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구시민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띠앗누리 25기는 인권과 평화, 빈곤과 기후변화, 연대성을 주제로 3차례의 배움터를 거쳐 7/28(토)~8/11(토)까지, 14박 15일 동안 네팔 포카라 따레빌 학교에서 현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8/18(토)에는 국내체험활동 및 해단식을 끝으로 전 단원이 공식적인 모든 활동을 건강하게 마쳤습니다.

## 3 라오스 긴급구호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의 위로 서한과 함께 한마음한몸운동 본부는 세피안-세노이 수력발전 댐 붕괴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라오스에 긴급 구호자금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재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5 수원교구 안산생명센터 생명나눔 교육

본부는 지난 8/30(목)에 수원교구 안산생명센터에서 세월호 유가족 10명과 직원 및 봉사자 8명, 총 18명을 대상으로 생명나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9/12(수)에 경기 안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시행된 생명문화 캠페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널리 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6 제1차 생명잇기 국회정책토론회



지난 9/1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인숙, 오제세, 윤일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본부가 연대하며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 토론회에서는, 2017년 뇌사장기기증 감소에 따른 원인 분석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부 이사장 유경춘 주교는 축사에서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고마운 일임을 전하였습니다.

## 7 자살유가족을 위한 ‘해바라기 슬픔돌봄 피정’ 개최



지난 9/7(금)~8(토), 1박 2일 동안 서울에 위치한 피정의 집에서 ‘해바라기 슬픔돌봄 자살유가족 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심하고 슬픔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자살로 잃은 큰 상실감을 서로 공감하며, 희망과 위로를 얻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8 자살예방 게이트키퍼교육 ‘보고듣고말하기’ 실시



지난 9/19(수), 천주교서울대교구사목국 주최로 각 본당 반장·구역장인 33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보고듣고말하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손애경 수녀님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각 본당과 본당이 속한 지역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해 자리한 교육생들을 위한 시간으로 꾸러졌습니다. 앞으로도 센터는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다양한 심화교육을 실시해 자살예방 활동가들을 더욱 많이 양성하고, 교회공동체 내 자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9 한우지원사업 빠른 채유를 바랍니다

2018. 7~9. | 단위: 만 원

지원사업	성명	병명	진료비
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사업	김OO	뇌종양(암)	1,000
	김OO	수두등, 뇌전증, 발달지연	300
	이OO	전두봉합 두개골유합증	300
장기이식 대기자 지원사업	손OO	백혈병	800
긴급지원 사업	강OO	신경척추손상, 뇌출혈, 폐렴	1,000
	길OO	만성 단순치주염	180
	닉O	중증 뇌부종, 신부뇌내출혈	700
	빅OOO	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 불기태위의 산모관리	600
	쇼OO	상완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200
	염OO	좌측고관절부 대퇴골경부 골절	350
	주OO	경동맥의 상세불명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400

## 그 감사,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본부의 홍보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나눔을 전달해 주시는 현장이나 그 나눔이 전달되는 현장에서 정말 많은 감사의 인사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부님 이하 저희 직원들은, “본부는 함께해주시는 분들의 나눔을 전달만 할 뿐입니다. 그 감사를 꼭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곤 하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뵈 기회가 생겨 제가 받은 수많은 감사를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고액의 치료비로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환자부터 척박한 환경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티의 산골 마을 주민들까지. 저의 눈과 손과 발로 전해 받은 온갖 감사를 짧은 문장으로나마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본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식구들은 26명이 전부이지만, 본부와 함께해주시는 모두를 합치면 엄청난 대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가족에게 바라듯이, 항상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기쁜 일이 가득하시기를 본부 직원들도 매일매일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 앞으로도 본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 9월 15일에 열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30주년 감사음악회’에서 본부 직원 전체를 대표하여 전한 이상민 미카엘 대리의 인사말 일부입니다.

#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피해  
긴급구호 특별모금(~10/31)



지난 9월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Sulawesi)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7.5에 달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높이 6m에 달하는 대형 해일이 인근 해안지역을 휩쓸어 천 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되었고, 수천 명의 부상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최악의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님은 10월 2일, 인도네시아 천주교 주교회의에 서한으로 위로의 뜻을 전하며,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한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은총이 전해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서울대교구 신자, 사제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위로 서한 중

## 본부의 지원 계획

-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구호자금으로 미화 5만 달러 지원 결정
- 오는 2018년 10월 31일까지 긴급구호 모금 실시
- 기금은 서울대교구 각 본당과 신자들의 지난 7월 지진 피해지원 성금과 함께 긴급구호 활동에 지원 예정
- 지속적으로 복구 현황 확인 예정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고통 중에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며, 더 많은 선의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끔찍한 재해로 가족과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모아주세요.

##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피해 긴급구호 후원하기

무통장입금	우리은행 1005-785-119119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ARS 후원	060-700-1117 (한 통화당 3천 원)
후원문의	02)774-3488